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대림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04. 곧 오소서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주님, 대림절의 초를 세 개째 밝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빛을 주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꾸준히 걸어야 할 삶의 길을 희망으로 걷지 못하고 절망과 근심 속에서 서성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이의 단호한 발걸음으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십시오. 어둠을 거치지 않고는 빛으로 나갈 수 없고, 눈물을 통하지 않고는 기쁨에 이를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험벗고 굶주린 이들, 외로운 이들, 병든 이들 곁에 다가서지 않고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매 순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골1:12-14	인도자
----------------	----------------	-----

♠ 교 독 문	56. 대림절(2)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한상익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89. 샤론의 꽃 예수	다함께
-----------	--------------------	-----

성경봉독	I. 히5:7	인도자
------------	---------------	-----

	II. 마24:45-51	문인옥 권사
--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사랑에 속한 사람	이성운전도사
-----------	--------------------	--------

	II. 생각지 않은 날에 ...	김기석 목사
--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81. 총성하라 죽도록 다함께
 헌금봉헌 <기타 연주: 유형준>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심 성의껏 감당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정신을 차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우리가 어디에 가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취약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둘러 당신의 옷을 삼아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의 평화(13)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준우 목사	오선영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안홍숙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훈동 최철수 안정숙 정영선 유혜경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윤주원 조병주 박효선 강순배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교만에 관하여

(전주에 이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14).

또 다른 선지자는 같은 맥락에서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시52:1)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하여 이 치명적인 교만의 영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거룩

함을 획득한 후에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15:10)라는 말을 되풀이 상기하며, 아울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127:1).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9:16)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근면하고 진지하고 단호한 사람이라도, 혈과 육에 얽매어 있는 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약1:17)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고전4:7)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권리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만하게 행동합니까?

덕행에 대한 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간 강도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증인입니다. 거룩한 교부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결같이 완전한 겸손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겸손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온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림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휟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에 의해서 완전한 사랑을 획득합니다. 아멘. (끝)

*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존 카시안의 <여덟가지 악에 관하여>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의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

격양하는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마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수도생활이나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관해서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시25:9)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홀로 생활하는 수도자의 지성을 사로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성은 온유함이라는 땅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어떤 덕목보다도 온유함을 더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이 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12:3)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시132:1)라고 말하면서 온유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주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11:29)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절제하지만 악한 생각들 때문에 격양하여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마귀를 키잡이로 삼고서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파수견(把守犬)을 주의 깊게 제어하며 양은 삼키지 않고 늑대만 죽이도록 훈련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에바그리오스)

먼저 눈물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통해서 영혼 안에 있는 사나운 것들을 길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 범죄한 것을 주께 고백하면, 용서함을 얻을 것입니다.(에바그리오스)

기도는 온유함의 꽃이며 노염으로부터의 자유의 꽃입니다.(에바그리오스)

어떤 기도

적어도 하루에
여섯 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음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이해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석철 장혜숙 권혁순 박해경 이한림 김명희 박애순 장성호 박승민
 유명숙 이봉옥 이정규 이인섭 안정숙 김훈동 박정숙 김윤수 박옥경
 박창운 허정윤 정복순 박재실 이성운 권미숙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하정석 이명희 김명순 황경순 최윤희 정두리 이정은
 이갑재 배부례 전영자 조순덕

감사헌금:

김기석 문금석 왕성환 강순배 왕수명 최철수 곽권희 권미숙 오진훈
 노순옥 박병선 박옥식 김영순 김병준 김종철 백숙현 방정열 이인섭
 임주빈 최현옥 정복순 김중수 이순정 박병구 이한림 김명희 김용길
 최영혜 무명1

생일감사헌금: 임미심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박창운 허정윤 나오미선교회 (누계- 18,2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선교회장/인도자 모임** : 새해에 각 선교회의 회장과 인도자로 일하실 분 들은 오후 1시 10분까지 중고등부실로 모여주십시오.
3. **동호회** : 매월 셋째 주일 오후 시간은 동호회의 활동 시간입니다. 사귄 과 배움의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4. **아름다운 원로** : 송년모임을 겸해 2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중고등부 실에서 모입니다.
5. **신청** : 내년부터는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화분으로 대신함). 각 가정 에서 기념할 날에 예전처럼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 돈은 캄보디아에 우 물을 파서 기증하는 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6. **하늘양식** : 가정예배서인 하늘 양식을 신청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1 층에 마련된 신청서에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결혼** : 류준모/심호선 씨의 결혼식이 23일(토) 오후 1시에 여의도 사학 연금회관에서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8. **신앙실천** : 금년이 가기 전에 풀어야 할 것은 풀고 매듭지어야 할 것은 매듭을 지으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배소 속

* 헌화 : 윤주원 권사 최윤선 집사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